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6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지는 로사리아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3~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38,353,340	
구 분	2021년 3월	2021년 4월	
자동이체	11,249,500	21,704,490	
지 로	1,267,240	1,570,560	
CMS이체	1,335,440	1,226,110	
합 계	13,852,180	24,501,16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4,3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교네 공부방	3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2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2,6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간접지원비	이주사목위원회	8,000,000	간접지원금 계좌로 지정기탁 후원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703,340	우편비, 출판비 등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8,353,34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1. 05 / 제57호

펴낸날 2021. 05.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culmigrant.net
facebook.com/seculmigrant instagram.com/seculmigrant

신부님 글

이주민들과 노동자의 수호자인 성 요셉의 삶

1995년 비오 12세 교황은 해마다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 기념일'로 지내도록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 요셉은 노동자의 수호자로 공경 받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성 요셉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본받습니까? 그들은 성 요셉의 믿음과 용기를 배우고 본받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 2장 13-16절에서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사건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육한 것을 떠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식을 잃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통해 하던 때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아기 살육사건으로 표현되는 헤로데의 잔인함과 폭정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며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피신한 성가정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살육을 피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성가정의 이주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성 요셉의 신앙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요셉이 꿈을 통하여 장차 있을 헤로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인도를 믿고 떠났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여러 절망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희망을 안고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용기 있게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천성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집트로의 도피 행위는 그의 가정의 안위는 물론 온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이주해온 노동자들은 작게는 그들의 가정은 물론 크게는 그들의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위한 믿음과 희망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주노동자들 안에서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과 무관심, 다양한 차별에 맞서며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인도네시아공동체 **민뚜 미카엘** 신부

공동체 소식

베트남 공동체 소식*

보문동 베다니의 집이 명동 셋별관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베트남 공동체의 사목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용하는 이주민의 신앙 상담, 교리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으로 타국에서도 신앙 생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축소된 상황으로 미사 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 많은 이주민이 와서 활기찬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에서 성북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무지개 재봉교실의 결혼이주여성 교육생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방을 개소하여 활동 중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에코백과 파우치, 앞치마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존감 확립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중이며 소규모 주문을 받거나 네이버 라이브 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공방의 모든 이주여성들이 어엿한 주체가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2021년 지구촌 살리기 생명평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지구촌 소등하기' 활동을 안내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지구살리기 위한 캠페인 피켓을 만들어 보았으며 어린이집 텃밭과 화단에 물 주며 함께 생명돌보기를 하였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며 우리 어린이들도 지구촌 살리기에 동참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살리기 피켓만들기〉



〈지구촌 불끄기운동, 지구온난화 영상시청〉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소식*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이 지난 3월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각종 폭력으로 학대 받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한국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폭력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담당 수녀님들과 실무자들의 헌신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주민 소식*

지난 3월 수도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과 기숙사에서 짧은 시기에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빠르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소나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여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고, 농장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3월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보건자가 아닌데 모두 전수 검사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 언짢다는 반응이 이주민들 사이에 퍼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서울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선화하였습니다.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에 따라야 하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기회에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가 될 수 있고, 함께 지내는 이웃들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도움 주신 분 소식*

어느 익명의 형제님 한 분께서 위원회를 방문하시어 8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형제님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당신 욕심으로 본인이 더 가지고 있었다며, 빈곤한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모아오신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실직과 빈곤 그리고 병고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주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주민들은 낯선 땅에서 일 하다보면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상담실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젊은 중증 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